



[산업]  
LG전자  
'TV명가' 빼기  
97형 올레드 출시  
06



	코스피 2989.24 (+0.47)		코스닥 1031.66 (-6.17)
	금리 (국고채 3년) 1.868 (+0.013)		환율 (원·달러) 1194.10 (+2.30) (4일)

# 카드사 '구독료 전액지원' 한다더니… 인상은 '모르쇠'

〈제휴업체〉

구독서비스 지원 카드 봇물  
제휴처 요금인상에 대책없어  
인상분 소비자 부담 불가피  
혜택변동사항 사전안내 필요

'구독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카드를 출시해 인기몰이를 한 일부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구독료 '기습인상'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독서비스 업체들의 갑작스런 가격 인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구독료 등 혜택변동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구독서비스 제휴카드 안내에선 제휴업체가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소급적용 여부나 고객의 차액 부담 여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꿀카드'의 경우 전월 이용 실적 1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료 전액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기준 월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가 인상분을 부담하게 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쿠팡과 제휴 당시 2900원이란 금액으로 약

정을 맺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 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쿠팡 등 인기 구독서비스의 기습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상업자표신신용카드(PLCC)에서 혜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PLCC는 상품안내나 광고에서 조차 혜택지급 조건만을 명시할 뿐, 구독료가 인상될 경우에 대해 선망한 사전 안내를 고지하

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구독서비스 PLCC로 꼽히는 '네이버 현대카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월 4900원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발급 페이지나 앱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 대한 안내 문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시된 'T우주 신한카드' 역시 구독 플랫폼 'T우주' 구독료 전액 지원을 전면에 내걸었다. <5면에 계속>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기업의 역할 발표하는 최태원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의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

## 지난해 5대 은행 가계대출 5.8% 증가

# 올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4~5%로 고삐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9조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이들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670조1539억 원)과 비교하면 5.80%(38조 899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인 6%까지 차오른 셈이다.

### ◆ 지난해 말, 가계대출 주담대 가 주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05조4046억원으로 전년 말(473조7849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

대출을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등을 가계대출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규모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주택담보대출은 2조760억원 증가해 지난해 평균치인 2조 6349억원을 밟돌았다.

신용대출은 139조5572억원으로 전년 말(133조6482억원)과 비교해 4.42% 증가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잔액은 3058억원 증가하다 12월 1조5766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신용대출을 억제한 것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이 가시화한 셈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이내로 축소하고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버스티비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靑 "집값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 추경, 지금 거론할 것 아냐"  
▲ 송영길 "尹 나라 맡기엔 역부족… 책 임총리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사진 뉴시스

▲ 김경진, 이준석 사퇴 압박… "당내 10명 중 7~8명 李 백의종군 원해"  
▲ 김용남, 김종인 쇄신방침에 "미리 상의없이 발표… 쿠데타 맞아"



▲ 김충리 "탄소중립이 기업 옥죄기?… 경쟁력 강화에 필수" /사진 뉴시스  
▲ 안일환 전 경제수석, 사임 2개월 만에 OECD대사로